

완도 여름 해양치유 체험존 '성료'

해변 노르딕워킹, 다시마 팩 체험 등 '피서도 즐기고 힐링' 일석이조

완도군이 해양치유지원이 풍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서객들에게 힐링과 재미를 제공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24.부터 8.16.까지 24일간 운영한 '여름 그리고 휴식' 해양치유 체험에 작년 보다 많은 총 4,040명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진행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5백여 명, 지난해 봄에는 9백여 명, 여름에는 2천 명이 넘게 참여하였으며 매회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와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용 물품은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며 운영했다.

해양치유 체험존에서는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예사 이즈 등의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시마 팩, 모래찜질 체험과 비파 음료, 청산도 보리커피 등을 시용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했다.

특히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노르딕워킹, 몸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필라테스, 해변 예사 이즈,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터치해주는 명상 등의 야외 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여 청정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 A씨는 "다른 체험도 다 좋았지만 햇빛에 잠깐 노출되어도



별것없게 달아오르는 피부인데, 시원하게 해 둔 다시마 팩이 시원했다. 진정·보습은 물론 피부가 촉촉하고 탱글탱글해진 것 같다."

이어 "모래찜질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고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청산도 보리커피는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또 생각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완도를 처음 찾았는데 가족과 함께 해양치유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잊지 못할 추

억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것 같다.", "바다 건너 보고 즐기는 결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양치유를 할 수 있어서 신선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소감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군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해양치유산업 홍보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 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그 결과를 활용,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세계농업기술상...해외시장 개척 공로

해남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운영식)이 제26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농업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세계농업기술상은 1995년부터 농업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유공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해 오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2017년부터 해남에 수출쌀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해 '하양 가바쌀' 브랜드로 현재까지 92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수출 쌀 가공공장을 인증받아 '윈해미' 브랜드로 8월 말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총 30톤 수출 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유기인증(USDA), 중국유기인증(CQC),



할랄 인증, 중국유기가공공장 인증을 취득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 친환경농업대상, 수출농업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또다시 큰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운영식 대표는 "식량자물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기반 구축부터 세계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해남군과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과 수출국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흥군 관산읍 이장협, 코로나19 재확산에 발 빠른 방역 대응 태세

장흥군 관산읍(읍장 임용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여 8월 이장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면 모임과 각종 마을 행사 취소하는 등 발 빠른 방역 대응태세에 나섰다

관산읍 이장협의회(회장 김이석)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으로 이장 임원진들과 방역차량을 활용 73개 경로당, 버스정류장 주민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 작업을 펼쳤다.

하루 2회 이상 마을별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방송도 실시했다.

이번 방역작업은 코로나19 차단을 물론 하절기 해충퇴치 및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도 함께 진행했다.

종교시설을 순회 방문해 단체 식사 자제와 손 세정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식당,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도 협조를 당부했다.

매일 담당마을별 이장과 함께 지속되는 폭염에 어르신 안부문기와 발열 및 감기증세가 있는 주민이 있는지 마을 곳곳을 관찰하고 있으며, 서울 등 타지역 방문 자제와 의심 증상시 즉시 보건소 및 읍으로 신고하도록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진도군, 실내수영장 등 공공시설 임시 휴관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로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우선 8월 말까지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개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고강도 방역조치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 폐쇄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 국공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5 곳이다. 아리랑 사네마 등 작은 영화관도 휴관한다.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되며, 도서

대출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남감 도서관에서는 장남감 대여만 가능하며,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도 휴관한다.

경로당은 취약계층의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하는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8월 22일 예정인 진도읍 조곰시장도 임시 휴장하며, 경로당 등 개방되는 모든 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취사 등이 금지된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매뉴얼을 지정해 이행사항을 매일 점검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몸과 마음 힐링 통한 재충전으로 민원 친절도 제고

강진군은 지난 8월 21일, 강진군 소재 다산수련원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더불어 각종 민원 증가로 누적된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힐링프로그램에서는 공직 선배인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에게 듣는 공직 생활 중 마음 다스리기와 업무담당 직원의 민원사례 및 시책 발표 시간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윤현주 한국웃음치료 연구소장의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과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계속해서 민원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민원인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원봉사과 김지영 주무관은 "민원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부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